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다해) 사순 제4주일

입당 : 119 파견 : 122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시편 34, 2-3, 4-5, 6-7)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Taste an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Psalms 34:2-3, 4-5, 6-7)

- 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 his praise shall be ever in my mouth. Let my soul glory in the LORD; the lowly will hear me and be glad. ◎
- Glorify the LORD with me, let us together extol his name.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me and delivered me from all my fears. ◎
- Look to him that you may be radiant with joy, and your faces may not blush with shame. When the poor one called out, the LORD heard, and from all his distress he saved him. ◎

빵과 술 (1)

하느님께로 이끄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 그리스도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전례 또한 뚜렷이 앞장을 서주지 않았던들 우리로선 무어라고 하기 어려웠을 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관조와 사랑, 인식과 마음가짐으로 성취되는 일치가 있을 뿐 아니라, 생활한 우리 존재와 하느님 자신과의 일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식과 원의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느님을 찾는 것이다. “내 마음과 온몸이 살아 계신 하느님께 환성을 올리나이다” 하고 성영은 말했고, 우리도 과연 자신의 존재와 생명에서 하느님과 결합되기 전에는 만족을 모른다. 그렇다고 존재나 생명의 뒤섞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뜻한다면 그것은 분수를 모르는 짓일 뿐더러 도무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어떤 피조물도 신적인 것과 혼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렇다 하여도 역시 단순한 인식과 사랑을 넘어서는 일치가 또 있다. 실존하는 생명의 일치가 그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그 일치를 갈구하고 또 갈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갈망을 가리키는 매우 뜻깊은 말씀이 하나 있다. 성서와 전례가 술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우리 몸이 음식과 결합하듯이 우리 각자도 자신의 생명으로써 하느님과 하나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그려 주리고 목마르는 것이다. 하느님을 알아뵈고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손에 잡고 들고 가지고, 숯제 먹고 마셔 삼켜서 하느님으로 가득히 배부르고 싶은 것이다. 성체 대축일 전례는 주님 말씀을 빌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노라. 내가 아버지를 통해 살듯이 나를 먹는 자 또한 나를 통해 살리라”고 말한다.



▶ 사순특강 및 십자가의 길 안내

제4강의 주제 : 부활, 새로운 창조

4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4월 4일(금) 오후 7시 30분

제5강의 주제 : 기도, 신앙인의 숨

4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4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 50분 강의 후 종교음악 감상

※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 2025년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일시 : 3월 30일(주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장소 : 성전

대상 : 행동단원, 협조단원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일시 : 4월 6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2025/2026 회계년도 교무금 약정 캠페인

성당의 시설유지 및 보수, 사목에 필요한 경비,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2세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모든 신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는 2025/2026 회계년도 교무금 약정 캠페인을 실시하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기간 : 3월 23일 - 4월 20일

1) 각 가정에 약정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사무실에도 약정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약정서 기입 후 성당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 또는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주셔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 문자, 성당카톡으로 전송해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 103skccusa@gmail.com

문자/카톡 : 310-326-4350

우리들의 정성

교 무 금 \$ 2,280.00

주일헌금 \$ 2,909.00

감사헌금 \$ 1,000.00

합 계 \$ 6,189.00

김상근	김성태	김일선	김재희	김혜영	노순애	엄영희
이영희	이현창	임의웅	임종택	정규숙	조준제	조화숙
최기진	최승진	익명	안승원			